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오키나와(沖繩)의 지명 연구

-市·町·村명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李榮子

2009年 8月

오키나와(沖繩)의 지명 연구

-市·町·村명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李 昌 益

李 榮 子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8月

李榮子の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8月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2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5
II. 연구 지역의 개관	
1. 위치와 범위	7
2. 역사 및 언어변천	8
3. 류큐방언(琉球方言)의 특징	10
III. 市·町·村명의 외형적 고찰	
1. 구성의 특징	14
2. 음운의 특징	17
3. 액센트로 본 지명	19
1)일본어 방언의 액센트 체계	19
2)류큐방언의 액센트 체계	20
4. 한자수로 본 지명	23
IV. 市·町·村명의 의미적 고찰	26
V. 결론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0

<국문초록>

오키나와(沖繩)의 지명 연구
-市·町·村명을 중심으로-

이 영 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이 창 익

지명은 토지를 인식하고 그 토지와 다른 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에 의해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명명자는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일 것이며 지명의 대부분은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보통의 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은 조상들이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명의 어원을 연구하다 보면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명의 음운과 액센트 분석을 통하여 류큐방언(琉球方言)의 특징을 찾아보고, 타 지역 지명과의 한자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오키나와 지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오키나와 지명의 유형 분석을 통하여 무엇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 탐구해 보았다.

첫째, 조사 대상인 총 41개의 市·町·村명에 나타나고 있는 음운을 조사해 보니 연음에 의하여 장음으로 처리된 ‘エー’와 ‘フェ’, 근대에 들어 탄생한 ‘ジノーン’의 ‘ノ’, 그리고 2006년 합병에 의하여 새롭게 탄생한 ‘ナンジョウ’의 ‘ジョウ’를 제외하면 모두 ‘ア·イ·ウ’ 3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명을 통해서도 류큐방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오키나와 市·町·村명의 액센트 조사를 통하여 슈리·나하방언(首里·那覇方言)에는 도쿄식(東京式)과 게이한식(京阪式)의 액센트가 모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 1拍(mora)에서 어말까지 ●과 ○의 중간 높이로 읽는 게이한식 액센트의 변종(○○, ○○○, ○○○○)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오키나와방언에서만 볼 수 있는 액센트 형태라 할 수 있다.

셋째, 오키나와현(沖縄県)을 포함한 9개 지역의 市·町·村명의 한자수를 조사 비교해 보니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는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이 많은 반면, 오키나와에서는 세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이 전체 41개 중 21개로 51.2%를 차지하고 있다. 방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하여 한자의 음만을 빌려 표기하다 보니 일본 본토 지명에 비해 한자수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넷째, 오키나와의 市·町·村명을 의미적으로 고찰해 보니, 지형·지질과 관련한 것이 많았다. 오키나와가 사면이 바다인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업과 관련한 지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오키나와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연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위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내 온 농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 서론

1. 연구 목적

지명은 토지를 인식하고 그 토지와 다른 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¹⁾ 즉 지명은 2인 이상의 인간 사회에서 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할 때 사용하는 공통의 기호이며 자신의 거주지에 대하여 갖게 되는 최초의 인상, 즉 자연·인문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던 인상 또는 사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명은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²⁾ 이처럼 지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에 의해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명명자는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일 것이며 지명의 대부분은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보통의 말에서 나왔다³⁾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명은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지명을 통하여 당시의 사고, 의식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유일한 도서현인 오키나와(沖縄) 지명의 유형 분석을 통하여 오키나와 사람들의 자연·문화·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탐구해 보고, 지명의 음운·액센트 조사를 통하여 류큐방언(琉球方言)의 특징을 찾아보며, 타 지역 지명과의 한자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오키나와 지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일본 본토는 지명 연구의 역사가 길고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금 현재 지역별로 많은 저서들이 나와 있었으나, 오키나와는 본토에 비해 출발이 늦은데다 언어학적인 연구보다는 지리학 또는 민속학적인 연구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원에 대해서는 정설없이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하여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경우가 많았다.

1)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 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14

2) 서명인(1998), “청원군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p.1

3) 都丸九一(1995), 『地名研究入門』, 三一書房, p.54

『沖繩県の地名』이나 일본 지명에 관한 2개의 사전(『角川日本地名大辞典』, 『大日本地名辞書』)에서조차 아직 확인된 정설이 없어서 어원에 관한 서술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대가 바뀔에 따라 지명은 조금씩 탄생과 소멸을 반복한다. 오키나와도 2004년도까지 52개의 市·町·村이 존재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41개로 줄어든 상태다. 지금도 어디선가 추진되고 있을 市·町·村 합병과 도시 개발로 인해 어떤 지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또 어떤 지명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지명에도 그 지역만의 특색을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좋은 뜻의 한자를 넣으려고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지명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예전의 모습은 많이 퇴색되어 앞으로는 지명을 통한 이전의 자연환경, 조상들의 사고방식과 지방색 엿보기는 점점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2. 선행연구

일본에서는 1718년에 『地名誌』, 1800년에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地名字音転用例』를 편찬하였다. 근대가 되어 학문체계를 지향하는 호칭으로 ‘地名学’이란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오가와 다쿠지(小川琢治)로 1926년에 “인문지리학의 지명학적 연구에 대하여(상·하)”라는 논문을 내놓았다.⁴⁾

지명학은 크게 지리학, 역사학, 언어학, 민속학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사학과 언어학 분야이다. 지명은 역사의 발전을 배경으로 생겨난 것이 많은데다, 언어의 구조·변천·계통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명학회를 중심으로 일본 지명뿐만 아니라, 그들 언어의 어원을 찾아서 아시아 전역에 걸친 지명연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오노 스스무(大野晋)씨의 일본어와 타밀어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이 있다.

4) 김정미(2003), “김포시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pp.12~13

오키나와에 대한 지명 연구는 1896년 시데하라 단(幣原坦)의 “오키나와 및 류큐 명칭에 대하여(沖繩及琉球の名称に就て)” 라는 논문이 동양학예(東洋学芸) 라는 잡지에 실리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지명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독서라 할 수 있는 것은 1950년 히가시온나 간준(東恩納寛惇)에 의해 편찬된 『南島風土記』이다.

이것은 오키나와 전 지역의 지리는 물론 역사와 민속 분야에 있어서 사전과 같은 존재로 오키나와의 지명 연구와 관련한 많은 논문들이 이 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오키나와 지명 연구가 히가시온나 간준의 “琉球地名・人名研究” 와 긴조 조에이(金城朝永)의 『沖繩地名考』, 이하 후유(伊波譜猷)의 『沖繩考』를 제외하면 본토 사람들에 의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南島風土記』 이후로 오키나와 출신의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 중에서 오키나와의 지명 연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로 민속학자인 나카마쓰 야슈(仲松弥秀)를 들 수 있다. 그는 1982년 남도지명연구센터(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가 설립될 당시 대표를 맡기도 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오키나와는 미군정하에 놓이게 되고, 1972년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기 전까지 27년 동안의 활동은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6년 후인 1978년 오키나와국제대학(沖繩国際大学)에 남도문화연구소(南島文化研究所)가 설립되고, 1982년에는 류큐대학(琉球大学)에 남도지명연구센터가 생기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에 의한 오키나와의 지명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 지명 연구의 출발은 민속학과 역사학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남도지명연구센터 주최의 답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언어학·지리학과 관련한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

오키나와 지명 연구와 관련하여 『南島風土記』 이후 출판된 서적을 정리해 보았다.

표 1

저자	연도	제목	발행
金城朝永	1953	地名「沖繩」の起源について	沖繩タイムス
阪巻駿三編	1964	琉球人名地名辞典	東京大学出版会
真喜志興雄	1967	おもろによる首里の語源と沖繩の地名について	比嘉興文堂

仲松弥秀	1968	神と村—沖縄の村落	琉球大学沖縄文化 研究所
奥田良寛春	1971	沖縄の地名考	月刊沖縄社
新垣恒篤	1972	新編風土記・首里城周辺	私家版
仲松弥秀	1977	古層の村・沖縄民俗文化論	沖縄タイムス社
島袋全発	1978	那覇変遷記	沖縄タイムス社
仲松弥秀	1981	「おもろさうし」の中の地名	小学館
南島地名研究 センター	1983	南島の地名 第1集	サザンプレス
田名真之	1984	南島地名考—おもろから沖縄市 誕生まで	ひるぎ社
崎原恒新	1985	沖縄の地名の由来—地名語源伝承 集成	月刊沖縄社
南島地名研究 センター	1985	南島の地名 第2集	沖縄出版
南島地名研究 センター	1988	南島の地名 第3集	沖縄出版
宮城真治	1988	沖縄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南島地名研究 センター	1991	南島の地名 第4集	ボーダーインク
南島地名研究 センター	1991	地名を歩く	ボーダーインク
宮城真治	1992	沖縄地名考—県下の地名 三百四 十一の意味を解く	沖縄出版
大城盛光	1995	沖縄地名総集	むぎ社
南島地名研究 センター	1998	南島の地名 第5集	ボーダーインク
久手堅憲夫	2000	首里の地名—その由来と縁起	第一書房
南島地名研究 センター	2005	南島の地名 第6集	ボーダーインク

南島地名研究 センター	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 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	------	------------------------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현재 일본 오키나와현(沖縄県)에 있는 41개 市·町·村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1개의 市·町·村명은 표2와 같다. 괄호 안에 지명의 방언과 현대어 표기를 같이 하였다.

표 2

(11) 市	那覇(ナファ / ナハ)	浦添(ウラシー / ウラソエ)
	うるま(ウルマ / ウルマ)	南城(ナンジョウ / ナンジョウ)
	名護(ナグ / ナゴ)	豊見城(トゥミグスク / トミグスク)
	沖縄(ウチナー / オキナワ)	石垣(イシガチ / イシガキ)
	宜野湾(ジノーン / ギノワン)	糸満(イチュマン / イトマン)
	宮古島(ミヤコジマ / ミヤコ지마)	
(11) 町	嘉手納(カディナー / カデナ)	西原(ニシバル / 니시하라)
	久米島(クミジ마 / 쿠메지마)	八重瀬(エージ / 야에세)
	竹富(タキドゥン / 타케토미)	北谷(チャタン / 챗탄)
	南風原(フェーバル / 하에발)	本部(ムトゥブ / 모투브)
	与那国(ユナグニ / 요나그니)	与那原(ユナバル / 요나발)
	金武(チン / 킨)	
(19) 村	粟国(アグニ / 아그니)	今帰仁(ナチジン / 나키진)
	伊江(イー / 이에)	伊是名(이지나 / 이ゼ나)
	伊平屋(이히야 / 이헤야)	大宜味(우지미 / 오오기미)
	恩納(ウンナ / 온나)	中城(나카그시쿠 / 나카그스쿠)
	宜野座(지ヌ자 / 기노자)	国頭(쿤잔 / 쿤가미)
	座間味(자차미 / 자마미)	多良間(타라마 / 타라마)
	渡嘉敷(투카시치 / 토키시키)	渡名喜(투나치 / 토키)
	東(피가시 / 히가시)	読谷(윤탄자 / 요미탄)
	北大東(키타우푸아가리 / 키타다이트우)	
	南大東(미나미우푸아가리 / 미나미다이트우)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서적 중에서 오키나와 지명과 관련된 서적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으며, 일본의 전국 지명 사전의 내용을 보더라도 오키나와의 지명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간단하면서 추측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자료로는 남도지명연구센터에서 발행한 『地名を歩く』와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나고시교육위원회(名護市教育委員会)에서 발행한 『沖縄地名考』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어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市・町・村의 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하여 각 市・町・村에서 발행하는 자료⁵⁾를 받아 보다 더 정확한 어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현대어가 아닌 방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의 외형적 고찰로 들어가 먼저 어원의 구성에 있어서 어기를 중심으로 접두어, 접미어를 조사하여 무엇을 의미하는 접두어, 접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오키나와 지명에 많이 쓰이는 음운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고 그것을 통하여 류큐방언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셋째, 지명의 액센트 조사를 통하여 류큐방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넷째, 지명의 한자수 조사를 통하여 오키나와 지명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섯째, 지명의 의미적 고찰을 통하여 오키나와 사람들이 무엇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5) 北大東村役場(1998), 『北大東村』, 北大東村役場

南城市役所(2008), 「合併までの経緯」, 南城市

西原町史編纂委員会(1989), 『西原町史 第4巻 資料編3 西原の民俗』, 西原町役場

比嘉徳(1989), 『中頭郡誌』, 前田草苗

八重瀬町役場(2005), 「東風平町具志頭村合併協議に関する経過報告(概要)」, 八重瀬町

与那国町企画室(2002), 『交響する島宇宙 日本の最西端 与那国島の地名と風土』, 与那国町

II. 연구 지역의 개관

1. 위치와 범위

일본 서남단에 위치해 있는 오키나와현은 일본 유일의 도서현이다.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활 모양으로 이어진 일본열도 서남부의 류큐제도(琉球諸島)에 해당하는데,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양 옆에 끼고 섬들이 이어져 있다.

규슈(九州)섬 남쪽에서 타이완(臺灣) 가까이에 있는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까지 이어진 섬들을 난세이제도(南西諸島)라고 하는데, 그 남반부를 차지하는 류큐제도에 오키나와현의 모든 섬들이 들어간다. 난세이제도의 북반부인 사쓰난제도(薩南諸島)는 가고시마현(鹿児島県)에 속한다.

지리학적으로 난세이제도는 류큐열도로 불리는 모든 섬들과, 동중국해상에 있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 태평양상에 떠 있는 다이토제도(大東諸島)로 구성된다.

오키나와현의 동쪽 끝은 다이토제도의 기타다이토지마(北大東島), 최남단은 야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의 하테루마지마(波照間島), 서쪽 끝은 요나구니지마이다. 오키나와현의 최북단인 이오토리지마(硫黄島)에서 최남단인 하테루마지마까지 약 400Km, 동쪽 끝인 기타다이토지마에서 서쪽 끝인 요나구니지마까지 약 1,000Km 에 이르는 북위 24도 2분~27도 52분, 동경 122도 56분~131도 19분의 범위에 있다.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 본섬, 이리오모테지마(西表島), 이사가키지마(石垣島), 미야코지마(宮古島)를 중심으로 16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2275.71km²(2007년 통계)이다. 섬의 면적으로는 가장 큰 오키나와 본섬이 현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리오모테지마, 이사가키지마, 미야코지마, 구메지마 등 5개의 섬이 전체 면적의 약 85%를 차지한다.

류큐제도는 크게 오키나와제도(沖縄諸島)와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로 나뉜다. 오키나와제도는 오키나와 본섬과 그 주변 도서, 사키시마제도는 미야코지마를 중심으로 한 미야코제도와 이사가키지마를 중심으로 한 야에야마제도로 행정상 구분된다.

오키나와현은 현재 11市 11町 19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현재 인구는 137만 명으로, 그 중 90%가 오키나와 본섬 중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2. 역사 및 언어 변천

류큐의 역사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오키나와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던 류큐왕국(琉球王国) 시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의 일부분인 오키나와현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던 시대,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하에 놓이게 되는 미군 점령 시대이다.

이렇게 역사와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언어도 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시대와 그에 따른 언어 변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1) 류큐왕국 시대

류큐는 중국에서 바라본 동중국해상에 떠 있는 타이완(臺灣)을 포함한 섬들의 총칭이었다⁶⁾고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유구(琉球)라는 한자가 지금처럼 오키나와만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명사(明史)』⁷⁾ 이후라고 한다.

전 지역이 작은 영토로 나뉘어 있던 류큐는 14세기에 호쿠잔(北山), 주잔(中山), 난잔(南山)의 산잔(三山)시대로 들어선다. 이것은 현재의 북부, 중부, 남부지방에 해당한다.

산잔의 각 지역은 교역과 농민을 통솔하는 아지(按司)라고 하는 부족장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산잔의 아지는 1세기에 걸쳐서 세력다툼을 벌였으며, 드디어 1429년 난잔의 사시키(佐敷) 출신인 쇼하시(尚巴志)가 섬 전체를 통일하여 류큐왕국을 수립하였다.

제 3대 쇼신왕(尚真王) 시대(1477~1526)는 류큐왕국의 황금기로서 오키나와 역사상 가장 평화스럽고 번영된 시기였다.

6)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67

7) <http://ja.wikipedia.org/wiki>

명사(明史) : 중국 청(淸)나라의 건륭제(乾隆帝) 때 편찬된 역사서. 1739년 완성.

명나라의 성립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본토로부터 가나문자와 한자, 일본문학과 한문 등이 도입되고,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각지로부터 받아들여 류큐왕국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던 시대로 알려져 있다.⁸⁾

이 시기에 가나표기법이 성립되고, 16세기 초까지 가나문자가 성행하게 된다.

그리고 지명의 한자표기에 있어서는 15세기 중엽부터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6세기 중엽 이후로는 지금과 동일한 지명의 한자표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여 17~18세기에 완전히 정착되기에 이른다⁹⁾.

이것으로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가나와 한자가 같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200년간 류큐왕국은 일본, 중국, 한국,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해외무역을 전개하였다.

2) 오키나와현으로서의 출발(1879년~1945년)

해외무역으로 이윤을 얻고 있던 류큐왕국은 1609년 규슈 사쓰마번(薩摩藩)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후 류큐왕국은 중국과 사쓰마에 이중으로 조공을 바치게 된다.

1868년의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메이지정부는 1872년 류큐왕국을 강제적으로 일본에 편입시키고 류큐번(琉球藩)을 설치한다. 이로 인해 류큐왕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1879년에는 류큐번이 폐지되고 오키나와현이라는 일본의 하나의 현으로서 탄생한다.

그리고 본토의 언어가 들어오면서 류큐방언은 고대어에서 근대어로 변모하게 된다.

현제(県制)의 시행과 더불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동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언을 사용해 온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토 언어의 사용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결국 보수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약 10년 동안은 별다른 활동없이 지나갔으나, 20세기로 들어서 근대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공용어인 도쿄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학교 교육에서도 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8) 亀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1997), 『日本列島の言語』, 三省堂, p.317

9) 田名真之(1993), 『南島地名考』, ひるぎ社, p.23

그 후 1940년대로 들어서면서 시작된 표준어쓰기 운동은 전 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운동으로 발전한다.¹⁰⁾

3) 미군 점령 시대(1945년~1972년)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미군과 일본군이 오키나와에서 지상전을 치르면서 현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오키나와는 27년간 미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된다.

미군정부에 의한 오키나와에서의 영어교육이 필요이상으로 중시되는 등의 약간의 교육적인 개입이 있었으나, 오키나와가 주체가 된 언어교육에 있어서는 지역어의 표준어화에 성공하게 된다.

미군 점령 기간중에 건설된 거대한 군사기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광대한 부분을 미군기지가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으로 복귀하자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여 1972년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반환된다.

그러나 지금도 재일미군전용시설 면적의 74.3%에 이르는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총면적의 10.24%¹¹⁾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류큐방언(琉球方言)의 특징

일본어의 방언은 본토방언(本土方言)과 류큐방언(琉球方言)으로 나눌 수 있다.

류큐방언은 대략 2~7세기에 걸쳐 규슈에서 류큐로 이동해 온 사람들에 의해 본토방언에서 분리되어 나와 8세기 경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상 변화가 늦어지면서 12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류큐방언으로서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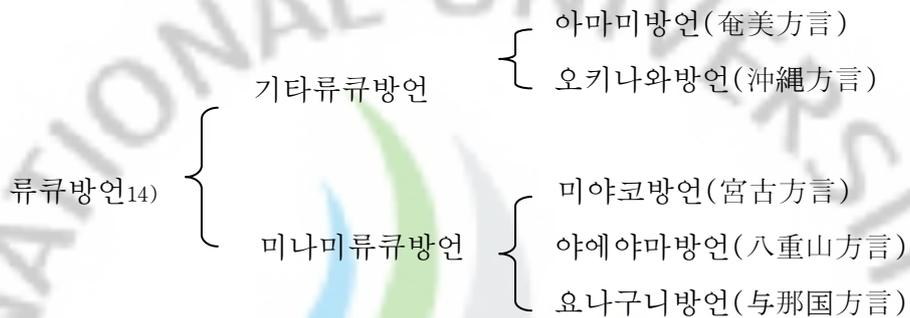
10) 大野晋・柴田武(1977), 『岩波講座日本語 1 1 方言』, 岩波書店, pp.223~232 요약

11) 沖縄県総務部知事公室基地対策室(2008), 『沖縄の米軍及び自衛隊基地(統計資料集)』, 沖縄県, p.1

12) 大野晋・柴田武(1977), 『岩波講座日本語 1 1 方言』, 岩波書店, p.191

본토방언은 하치조방언(八丈方言)과 동부방언(東部方言), 서부방언(西部方言), 규슈방언(九州方言)으로 분류되고, 류큐방언은 기타류큐방언(北琉球方言)과 미나미류큐방언(南琉球方言)으로 분류된다.¹³⁾

기타류큐방언은 다시 아미미방언(奄美方言)과 오키나와방언(沖縄方言)으로, 미나미류큐방언은 미야코방언(宮古方言)과 야에야마방언(八重山方言), 요나구니방언(与那国方言)으로 하위 분류된다.



오키나와방언은 다시 오키나와 북부방언과 오키나와 중남부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류큐왕국의 수도였던 슈리방언(首里方言 : 중남부방언)은 류큐방언 전체의 공통 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도 슈리·나하방언(首里·那覇方言)을 기초로 하였다.

류큐방언은 본토방언과 같은 계통이면서 본토방언과 대별될 만큼 본토방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키나와 북부방언에 지금도 남아 있는 고대 일본어의 ㅎ행 자음인 P음의 존재이다. P음은 F음을 거쳐 다시 H음으로 변화해 왔다.

예를 들면 ‘ハナ(花)’라는 단어가 パナ에서 ファナ로 바뀐 뒤 오늘날의 ハ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류큐방언에서는 지금도 パナ, ファナ, ハナ라는 단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북부에서는 대부분이 P음을 그대로 남기거나 F음으로 발음하고 있으며, 중남부에서는 H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13) 飯豊毅一・日野資純・佐藤亮一(1986), 『講座方言学1 方言概説』, p.6

14) 飯豊毅一・日野資純・佐藤亮一(1984), 『講座方言学10 沖縄・奄美の方言』, 国書刊行会,

둘째, 모음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일본어의 모음은 ‘アイウエオ’의 5모음이지만, 류큐방언의 모음은 ‘アイウ’의 3모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⁵⁾ 그렇다고 エ와 オ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エ가 이로, オ가 우로 바뀌어 가면서 3모음이 된 것이다. 그래서 あめ(雨)는 アミ, くも(雲)가 クム로 발음된다.

그러나 다음의 표3¹⁶⁾에서처럼 연모음에서 파생된 장음으로서의 e와 o는 방언에서도 볼 수 있다.

표 3

방언 \ 연모음	アイ	アエ	アオ	アウ	オエ
東京(とうきょう)	a i	a e	a o	a u	o e
奄美(あまみ)	ë:, e:	ë:, e:	o:	o:	ï: ë:
沖縄(おきなわ)	e:	e:	o:	o:	i: e:
宮古(みやこ)	aĩ, ai	ai	o:, au	o:	ui
八重山(やえやま)	ai	ai	o:, au	au	ui
与那国(よなぐに)	ai	ai	au	u	ui

예를 들면, 오키나와 남부 지방에 ‘하에바루(南風原)’라는 도시가 있다. ‘ハエ(hae)’를 보면 모음인 ア(a)와 エ(e)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장음인 エー(e:)로 발음하여, 위의 지명을 방언으로 읽으면 ‘フェーバル’가 된다.

마지막으로, 남방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어가 남방계의 언어를 기본으로 하여 알타이계의 언어가 그 위에 겹쳐지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혼합설이 주류를 이룬다. 그 흔적은 본토 언어보다 특히 류큐방언에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류큐방언으로 잎을 파라고 한다. 이것은 야자잎을 의미하는 파파에서 왔는데 대만의 아미스어에서도 나뭇잎을 papah라고 한다.

15) 沖縄文化社(2002), 『ひとことウチナーグチ』, 沖縄文化社, p.7, p.111 내용 요약

16) 柴田武外(1977), 『岩波講座 日本語 1 1 方言』, 岩波書店, p.216

그리고 류큐방언으로 태양은 ティダ인데, 오키나와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하테루마지마에서는 햇님을 ティダン ガナシ(원래 뜻은 いとしい太陽)라고 한다. 이처럼 하테루마방언에서는 ‘피수식어+수식어’ 일 경우 피수식어의 어말이 비음이 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괄, 사이관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모로어에서도 볼 수 있다. tommo(ひじ)와 kannai(手)가 결합하였을 때 tommon kannai(手のひじ)가 된다.¹⁷⁾

류큐방언으로 동쪽은 해가 뜬다고 해서 アガリ, 서쪽은 해가 진다고 해서 イリ, 남쪽은 フェー, 북쪽은 ニシ라고 한다.

바람과 관련된 단어 중에서 동풍을 나타내는 ‘코치(東風)’, 거친 바람을 나타내는 ‘아라시(荒風)’에서 ‘치’와 ‘시’는 모두 바람을 뜻하는 단어이다. 겨울철의 바람은 항상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쪽을 바람이 시작되는 곳으로 여겨, ‘니(根)’에 ‘시(風)’가 접속된 ‘니시’는 북쪽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동서남북과 관련한 지명은 지금도 여전히 지명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일본의 가장 서남단에 위치해 있는 西表島를 ‘이리오모테지마’라고 읽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17) 飯豊毅一・日野資純・佐藤亮一(1984), 『講座方言学10 沖縄・奄美の方言』, 国書刊行会, pp.393-394

Ⅲ. 市・町・村명의 외형적 고찰

1. 구성의 특징

지명은 접두어+어기+접미어로 구성된다. 접두어는 上下, 内外, 大小, 前後, 東西南北 등의 어기 앞에서 어기를 수식해 주는 것이며, 어기는 지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격요소이고, 접미어는 지명을 유형화하기에 편리한 분류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 市・町・村명의 의미분석을 통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어원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하였다.

표 4

지명	접두어	어기	접미어
イジナ		イジナ(イシ:石+シ ナ:砂)	
ウルマ		ウル(珊瑚)	マ(間=所, 場所)
ナグ		ナグ(和やか에서)	
ミヤークジマ		ミヤ(평지)	ク(国=村)+シマ(島)
イシガチ		イシ(石)+カチ(垣)	
トウカシチ	トウ	カシ(경사)	チ(地) ¹⁸⁾
ユン탄자	ユン(四方)	탄(田)	자(挟:谷)
우치너	우치(大きい)		나(所)
이		이시(石)	
운나		운(陰地)	나(所)
챠탄		챠(刻 ^{きざ} む에서. 키자 >키타>챠)	탄(台地)

18) 玉城三郎(1983), “村・島・原・寒水の一考察”, 『南島の地名』第1集, サザンプレス, p.60
생산공간을 나타내는 시마(島)는 산·하천·연안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후에 地(地)와 間(間)로 나뉜다.

지명	접두어	어기	접미어
이츠크만		이트(磯)+만(崖) ¹⁹⁾	
타키드운		타키(岳ない의 준말)	타운(所)
우지미	우프(大きい)	이쥬(泉)	
나치진		나(港)	치진(海濱)
유나그니		유나(砂)	크니(国=村)
유나발		유나(砂)	할(野原)
지노온	지(키)	ヌ(습지) + 와(물가) +ヌ(가지다)	
친		키(切る의 키)	ヌ(広野)
타라마		타라(平地)	마(間=所, 場所)
나파	나(前)		파(方向)
카디너		카디(角)	너(所)
크ン잔		크(国)	잔(上)
니시발	니시(北)		할(耕地, 野原)
페어발	페어(南)		할(耕地, 野原)
미나미우파가리	미니(南)+우프 (大)+아가리(東)		
키타우파가리	키타(北)+우프 (大)+아가리(東)		
키타나카그시크	키타(北)	나카(일정 구역 안)	그시크(城)
피가시	피가시		
메크지마	메(前)		크(国=村)+시마(島)
이	이리(西)		
유나그니		유나(‘오오ハマ보 우’라는 나무)	크니(国=村)
크미지마		크미(米)	시마(島)

19)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123

바닷가 절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いとまむむら’에서 왔다.

지명	접두어	어기	접미어
アグニ		ア(粟)	クニ(国=村)
イー		イー(=飯, 벼)	
ウラシー		ウラ(浦)+シー(襲 ^{おそ} い)	
トゥミグスク		トゥミ(名高い)	グスク(城)
ナカグシク		ナカ(일정 구역 안)	グシク(城)
ナンジョウ	ナン(南)		ジョウ(城)
トゥナチ		トゥナチ(戸がない)	
イー		イイ(良い)	
エージ	エー(前方)	シ(岩)	

총 42개의 市·町·村명(중복 설명 포함. 37개 市·町·村)의 구성을 분석해 보니 접두어 또는 어기로만 이루어진 지명-이제나(伊是名), 나고(名護), 이시 가키(石垣), 이토만(糸満), 미나미다이토(南大東), 기타다이토(北大東), 히가시(東), 우라소에(浦添), 도나키(渡名喜), 이에(伊江, 4번 중복설명)-이 13개 보인다. 그 중에서 순수 단일어로 된 지명은 ‘나고, 히가시, 이에’이며, 그 외에는 지명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두 단어가 대등하게 연결된 것(이제나, 이시가키, 이토만), 지명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몇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지명(미나미다이토, 기타다이토, 우라소에, 도나키) 등이 있다.

나머지 29개의 지명은 어기를 중심으로 접두어 또는 접미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어기+접미어로 구성된 지명이 17개로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접두어+접미어로 구성된 지명이 6개, 접두어+어기로 구성된 지명이 3개, 접두어+어기+접미어로 구성된 지명이 3개 보인다.

접두어와 접미어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사용되고 있는 횟수를 나타낸다.

표 5

접두어	접미어
東 : 아가리(2), 피가시	島 : 시마(3)
西 : 이리	所 : 나 또는 나- (3), 마(2), 타운, 치
南 : 페어, 미나미, 난	耕地, 野原 : 할(3)
北 : 키타(2), 니시	

前：ナ, メー, エー	村：クニ(3), ク(2)
大きい：ウフ(3), ウチ	城：グシク(2), グスク, ジョウ
四方：ユン	広野：ヌ
意味不通：トゥ, ジ	海浜：チジン
	方向：ファ
	上：ジャン
	台地：タン
	谷：ザ

접두어가 들어간 지명 16개를 살펴보면,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어인 동서남북을 사용하고 있는 지명(8개)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크다는 의미의 ‘우치, 우프’, 앞을 나타내는 ‘나, 메어, 에어’, 사방을 뜻하는 ‘юн’ 등이 보인다.

접미어로는 섬을 나타내는 ‘시마’와 장소·곳를 나타내는 접미어 중에서도 ‘나, 나어’와 ‘마’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성(城)을 뜻하는 ‘구시쿠’, 경지 또는 들판을 의미하는 ‘하루’, 지역·마을을 뜻하는 ‘쿠니, 쿠’ 등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

2. 음운의 특징

류큐방언에서는 ‘아이우’의 3모음 밖에 쓰이지 않아, 에가 이로, 오가 우로 발음된다. 이러한 특징은 지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지 조사해 보았다. 표 2에 있는 지명 표기를 기초로 하였다.

오키나와 시초손명의 어원에 나타나는 음운을 50음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오키나와 시초손명에는 총 46개의 청음(清音) 중 약 52.2%에 해당하는 24개 (ア, イ, ウ, エ, カ, キ, ク, シ, ス, タ, チ, ナ, ニ, ヌ, ノ, フ, マ, ミ, ム, ヌ, ラ, リ, ル, ヌ)만이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나’ (14회)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ㄴ’ (12회)이다. 그 다음으로는 우(8회), 시·치(7회), 쿠·타·미 (6회), 이·마(5회), 카·루(4회), 아·키·니·요(3회), 프·라·리(2회)의 순서로 쓰이고 있으며, 나머지(에, 스, 누, 노, 무)는 각 1회씩 쓰이고 있다.

24개 중에서 2회 이상 쓰이고 있는 것은 19개(ア, イ, ウ, カ, キ, ク, シ, タ, チ, ナ, ニ, フ, マ, ミ, ユ, ラ, リ, ル, ヌ)이다.

이 중에서 ヤイ(yai)에서 연모음인 ア(a)+イ(i)가 장음인 エー(e:)로 발음된 エ, 그리고 근대에 들어 새로 탄생한 ジノーンの ノ를 제외하면 모든 지명이 ‘アイウ’의 3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탁음(濁音)으로는 ガ, グ, ザ, ジ, バ, ブ, 요음(拗音)으로는 ジャ, ジョ, チャ, チュ, ヒャ, ミャ 등이 쓰이고 있는데, 탁음 중에서는 जि가 8회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グ(6회), ガ(4회), 바(3회), 나머지는 1회씩 쓰이고 있다. 요음 중에서는 ジャ가 3회, 나머지는 1회씩 쓰이고 있다.

이처럼 탁음과 요음에서도 2006년 1월에 합병하여 새롭게 탄생한 ナンジョウ(南城)시에 ‘ジョウ’가 들어간 것을 제외하면 모두 ‘アイウ’ 3모음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지명을 통해서도 류큐방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トウ(4회), 도우·데이·피아·파이·페(1회) 등이 보인다.

여기에서도 フェ는 ハエ(hae)에서 연모음인 ア(a)+エ(e)가 장음인 エー(e:)로 발음된 것으로 그 외에는 철저하게 ‘アイウ’ 3모음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지명의 음운 변천 과정을 조사하다 보니 오키나와 방언에서 현재의 지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오키나와 방언이 현대어로 바뀔 때 방언의 チ는 키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イシガチ→イシガキ, トウカシチ→トカシキ, チン→キン, ナチジン→ナ키ジン, 우치너→오키나와, トウナチ→トナ키 등의 지명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방언에서의 발음(ン)은 현대어에서 미로 발음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ユンタンザ→ヨミタン(ザ), 타키드운→타케토미 등이 있다.

셋째, जि에서 기로 변하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그 예로 우지미→오키나와, जि노ーン→기노와, जिヌジャ→기노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जिヌジャ→기노자, जिャチミ→자마미로 바뀌는 것처럼 जिャ가 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는 이지나→이제나, 나가→나고, 미야크→미야코, 유나그니→요나그니, 카디너→카데나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키나와 방언에서 아이우이우로 발음되었던 것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아이우에오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

3. 액센트로 본 지명

1) 일본어 방언의 액센트 체계

일본어 방언의 액센트는 크게 도쿄식(東京式)· 게이한식(京阪式)· 1형식(一型式)의 3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액센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장이 있다.²⁰⁾

먼저 고대 일본어에 있어서 액센트는 하나의 형태였으나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기면서 지금의 도쿄식과 게이한식으로 나뉘었다는 핫토리 시로(服部四郎) 씨의 주장이 있다.

킨다이치 하루히코(金田一春彦)씨는 도쿄액센트는 무로마치(室町) 시대의 게이한식 액센트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히라야마 테루오(平山輝男)씨는 일본어 방언의 액센트는 게이한식에서 도쿄식이 파생되었으며, 도쿄식에서 2형(二型)액센트와 같은 특수식이, 그리고 특수식에서 1형식이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게이한식 액센트에서 명사가 3拍이상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액센트의 경우의 수 계산법은 (拍의 수×2)-1이며²¹⁾, 그 형태는 아래의 표⁶²²⁾과 같다.

표 6

2拍	3拍	4拍	5拍
●●	●●●	●●●●	●●●●●
●○	●●○	●●●○	●●●●○
○●	●○○	●●○○	●●●○○
○● ²⁾	○●○	●○○○	●●○○○
	○○●	○●○○	●○○○○
		○○●○	○●○○○
		○○○●	○○●○○
			○○○●○
			○○○○●

20) 中條修(1990), 『日本語の音韻とアクセント』, 勁草書房, pp.119~120

21) 中條修(1990), 『日本語の音韻とアクセント』, 勁草書房, p.108

22) 飯豊毅一・日野資純・佐藤亮一(1986), 『講座方言学1 方言概説』, 国書刊行会,

도쿄식 액센트에서 명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액센트의 경우의 수 계산법은 拍의 수+1이며²³⁾, 그 형태는 아래의 표²⁴⁾과 같다.

표 7

	2拍	3拍	4拍	5拍
平板型	○●	○●●	○●●●	○●●●●
尾高型	○ ^ㄱ ●	○●● ^ㄱ	○●●● ^ㄱ	○●●●● ^ㄱ
中高型		○●○	○●○○ ○●●○	○●○○○ ○●●○○ ○●●●○
頭高型	●○	●○○	●○○○	●○○○○

2) 류큐방언의 액센트 체계

오키나와 市·町·村명의 액센트 조사를 통하여 3종류의 액센트 중 류큐방언에는 어느 액센트 형태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았다.

市·町·村명은 중남부방언인 슈리·나하방언으로 하였으며, 자료로는 ‘오키나와언어연구센터(沖縄言語研究センター)’의 홈페이지에 슈리·나하방언의 음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먼저 발음을 들으면서 액센트를 체크하고, 그것을 오키나와 지인에게 수정을 부탁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확을 기하였다.

41개의 市·町·村 중에서 기타다이토(北大東)와 미나미다이토(南大東)는 하나로 묶어 다이토(大東)로 하였으며, 나카구스쿠(中城)에서 기타(北)가 결합된 기타나카구스쿠(北中城)를 생략하여 총 39개 지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p.104 표3, p.110 표6, p.111 표7 요약 정리

23) 中條修(1990), 『日本語の音韻とアクセント』, 勁草書房, p.110

24) 飯豊毅一·日野資純·佐藤亮一(1986), 『講座方言学1 方言概説』, 国書刊行会, p.102

(1) 2拍

[○●]	伊平屋	イヒヤ	那覇	ナファ
	名護	ナグ		
[●○]	金武	チン		
[◎◎]	伊江	イー		

(2) 3拍

[○●●]	東	フィガシ		
[○●○]	伊是名	イジナ		
[○○●]	大宜味	ウジミ	座間味	ジャチミ
	多良間	タラマ		
[●●○]	八重瀬	エージ	うるま	ウルマ
[◎◎◎]	北谷	チャタン	粟国	アグニ
	恩納	ウンナ	本部	ムトゥブ
	宜野座	ジヌジャ	渡名喜	トゥナチ

(3) 4拍

[○●●●]	与那原	ユナバル	久米島	クミジマ
	沖縄	ウチナー	渡嘉敷	トゥカシチ
[○●●○]	石垣	イシガチ	西原	ニシバル
[○●○○]	与那国	ユナグニ		
[○○●●]	今帰仁	ナチジン		
[●●●○]	南風原	フェーバル		
[●●○○]	国頭	クンジャン		
[◎◎◎◎]	宜野湾	ジノーン	竹富	タキドゥン
	糸満	イチュマン	嘉手納	カディナー
	浦添	ウラシー	南城	ナンジョウ

(4) 5拍

[○●●●●]	大東	ウファガリ		
[○●●●●]	豊見城	トゥミグシク		

〔○○○○●¹〕 中城 ナカグシク 読谷山 ユンタンザ
 〔●●○○○〕 宮古 ミヤークジマ

위의 결과를 아래의 표8과 같이 구분하여 보았다.

표 8

	東京式(14)		京阪式(9)		京阪式 변종(16)	
2拍	○●	イヒヤ ナファ ナグ	●○	チン	◎◎	イー
3拍	○●●	フィガシ	●●○	エージ ウルマ	◎◎◎	チャタン アグニ ウンナ ムトウブ ジヌジャ トゥナチ
	○●○	イジナ	○○●	ウジミ ジャチミ タラマ		
4拍	○●●●	ユナバル クミジマ ウチナー トゥカシチ	●●●○	フェーバル	○○●●	ナチジン
					◎◎◎◎	ジノーン タキドウン イチュマン
	○●●○	イシガチ ニシバル	●●○○	クンジャン		カディナー ウラシー
	○●○○	ユナグニ				ナンジョウ
5拍	○●●●●	ウファガリ	●●○○○	ミヤークジマ	○○○○● ¹	ナカグシク ユンタンザ
	○●●●● ¹	トゥミグシク				

오키나와 지명의 액센트 조사를 통하여 오키나와의 중남부방언인 슈리·나하 방언에는 도쿄식과 게이한식 두 액센트가 모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쿄식 액센트를 보이는 지명이 14개 있으며, 게이한식 액센트를 보이는 지명이 9개, 게이한식 액센트의 변종으로 볼 수 있는 지명이 16개 있다. 게이한식 액센트의 변종 중에서 제 1拍에서 어말까지 ●과 ○의

중간 높이로 읽는 형태의 것(◎◎, ◎◎◎, ◎◎◎◎)이 13개로 가장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오키나와방언에서만 볼 수 있는 액센트 형태²⁵⁾라고 할 수 있다.

도쿄식 액센트의 지명 중에서는 평판형(平板型)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게이한식 액센트의 지명 중에서는 하강형²⁶⁾(下降型 : ●○, ●●○, ●●●○, ●●○○)이 많이 보인다.

4. 한자수로 본 지명

우리는 도쿄(東京), 오사카(大阪)처럼 2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일본 지명에 익숙하다. 실제로 47개의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명을 조사해 보아도 가나가와(神奈川), 와카야마(和歌山), 가고시마(鹿児島)를 제외한 44개의 지명이 모두 두 개의 한자(97.9%)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 지명에 있어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지 타 지역의 市·町·村명과 비교해 보겠다.

조사 대상은 동부방언 지역에서 홋카이도(北海道)를 비롯하여 아오모리현(青森県),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서부방언 지역에서 교토부(京都府), 시마네현(島根県), 돗토리현(鳥取県), 도쿠시마현(徳島県), 규슈방언 지역에서 가고시마현(鹿児島県)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9개 지역이다. 각 지역의 市·町·村명은 각 현(도, 부)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1) 홋카이도-180개

2자(132:73.3%)→3자(34:18.9%)→4자(6:3.3%), 그 외(6:3.3%)→
1자(2:1.1%)

(2) 아오모리현-40개

2자(28:70%)→3자(5:12.5%)→그 외(6:15%)→4자(1:2.5%)

25) 飯豊毅一・日野資純・佐藤亮一(1984), 『講座方言学 10 沖縄・奄美の方言』, 国書刊行会, p.53

26) 平山輝男(1992), 『現代日本語方言大辞典』 第一卷, 明治書院, p.303

(3) 가나가와현-33개

2자(25:75.8%)→3자(7:21.2%)→그 외(1:3%)

(4) 교토부-26개

2자(15:57.7%)→3자(10:38.5%)→4자(1:3.8%)

(5) 시마네현-21개

2자(16:76.2%)→3자(3:14.3%)→그 외(2:9.5%)

(6) 돗토리현-19개

2자(17:89.5%)→3자(2:10.5%)

(7) 도쿠시마현-24개

2자(19:79.2%)→3자(2:8.3%)→그 외(2:8.3%)→4자(1:4.2%)

(8) 가고시마현-46개

2자(29:63%)→3자(13:28.3%)→그 외(3:6.5%)→4자(1:2.2%)

(9) 오키나와현-41개

3자(21:51.2%)→2자(18:43.9%)→1자(1:2.4%), 그 외(1:2.4%)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9개 지역의 市·町·村명의 한자수를 조사한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는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비율이 높은 순서로 정리를 해 보면, 돗토리현인 경우 전체 19개의 市·町·村 중 17개의 지명이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으로 나타나 89.5%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쿠시마현, 시마네현, 가나가와현,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순으로 79.2%~70%에 해당하는 市·町·村이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가고시마현도 전체 46개의 지명 중 29개가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9개의 지역 중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이 가장 적은 곳은 교토부로 57.7%를 보인다.

그러나, 오키나와 지명에서는 세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이 전체 41개의 市・町・村 중 21개로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개의 한자로 된 지명은 43.9%(18개)의 비율을 보인다. 두 개의 한자로 된 지명이 많은 지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교토부보다도 14%나 낮다.

또한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교토부, 도쿠시마현, 가고시마현 등에서 보이는 네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이 오키나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하나의 한자로 된 지명은 오키나와에서 1개(東), 홋카이도에서 2개(泊, 森)가 보일 뿐으로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오키나와 전체 市・町・村의 과반수가 넘는 지명이 세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오키나와 지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이유로는 아래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헤이안(平安) 시대 법전인 『엔기시키키(延喜式)』²⁷⁾의 卷22를 보면 「모든 지역 내의 군과 마을 이름을 모두 두자를 사용하여 좋은 이름을 취하라(凡そ諸国部内の郡里等の名、並二字を用い必ず嘉名を取れ)」는 내용이 있다.²⁸⁾

일본 본토는 그 때부터 정책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는 두 한자를 합성하여 만든 지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두 글자의 한자 지명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오키나와인 경우 15세기 중엽부터 지명의 한자표기가 시작되었는데, 오키나와 방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다 보니 일본 본토와 달리 세 개의 한자로 된 지명이 많이 남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는 하나의 한자가 하나의 음절로 발음되는 지명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하(那覇), 나고(名護), 가데나(嘉手納), 야에세(八重瀬), 자마미(座間味), 도나키(渡名喜), 기노자(宜野座), 이제나(伊是名), 이헤야(伊平屋), 다라마(多良間), 나키진(今帰仁)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키나와 지명을 연구함에 있어서 한자의 뜻을 가지고 어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27) <http://ja.wikipedia.org/wiki>

엔기시키키(えんぎしき, 延喜式) : 헤이안(平安) 중기 가쿠시키키(格式 : 율령의 시행 세칙)를 집대성한 고대법전으로 50권(券)으로 구성되어 있다. 3代格式(弘仁(こうにん), 貞観(じょうがん), 延喜)중 延喜式만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905년 편찬 시작, 927년 완성. 몇 번의 개정을 거치 뒤, 967년부터 시행.

28)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91), 『地名を歩く』, ボーダーインク, p.10

IV. 市·町·村명의 의미적 고찰

지명의 어원에 초점을 두어 설촌 당시의 자연, 산업, 역사에 접근해 보고자의 의미를 통한 분류를 하였다. 그러나 오키나와 지명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오키나와 사람들조차도 확실히 단정지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서술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오키나와 지명 연구의 기초가 되는 『南島風土記』와 『沖繩地名考』에서조차도 市·町·村명의 어원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市·町·村의 아자(字)²⁹⁾명에 대한 논문에서도 市·町·村명의 어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41개의 市·町·村 중에서 위와 관련한 총 4개-모토부(本部), 기노자(宜野座), 이해야(伊平屋), 자마미(座間味)-의 지역을 제외한 37개의 市·町·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하나의 지명에 2가지 이상의 유래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하였다.

의미 분석에 있어서는 지형·지질 관련, 위치 관련, 생물 관련, 역사 관련, 마을에 있는 자연물 관련, 마을의 특징 등 6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본격적인 분류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키나와현 행정구역의 변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1879년(明治12) 일본의 한 현이 된 오키나와에, 1896년(明治29) 4월 1일, 나하구(那覇区)와 슈리구(首里区), 미야코군(宮古郡), 야에야마군(八重山郡), 구니가미군(国頭郡), 나카가미군(中頭郡), 시마지리군(島尻郡) 등 2구(区)와 5군(郡)이 설치된다. 그리고, 1908년(明治41) 4월 1일부터 오키나와현 및 도서정촌제(島嶼町村制)가 시행되면서 이토만정(糸満町)과 48개의 村이 설치된다. 村은 그때까지 류큐 지명에서 사용되던 ‘마기리(まぎり, 間切)’³⁰⁾가 변경된 것이다. 그리고 마기리와 함께 사용되고 있던 ‘무라(むら)’는 ‘아자(あざ, 字)’로 변경된다.

29) 아자(あざ, 字) : 町·村안의 구획 이름. (『広辞苑』)

30) 마기리(まぎり, 間切) : 류큐 행정구획의 하나로 몇 개의 무라(むら)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郡) 관할에 속했다. (『広辞苑』)

도서정촌제는 일본 본토의 정촌제와는 별도로 도서지역에 설치된 부현(府縣)청이 직접 통치하던 제도로 현재의 도쿄도(東京都) 이즈제도(伊豆諸島), 시마네현 오키제도(隱岐諸島), 나가사키현(長崎縣) 쓰시마(対馬), 가고시마현 미시마손·도카라열도(三島村・トカラ列島) 및 아마미군도(奄美群島), 오키나와현에서 시행되었다.

1920년에 이르러 비로소 본토와 같은 정촌제가 시행되게 되고, 그 이듬해인 1921년에는 나하시(那覇市)의 탄생과 함께 특별구(區)제가 폐지되면서 일반 시제(市制)를 따르게 된다.

1) 지형·지질 관련(20)

(1)이제나(イゼナ / 伊是名)

伊是名는 방언인 ‘이지나’의 한자차용표기로, 돌을 뜻하는 ‘이시’에 모래를 뜻하는 ‘시나’가 접속된 형태에서 중복되는 시가 탈락되면서 ‘이시나’가 되었다.³¹⁾ 즉, 돌과 모래가 많은 지역을 뜻한다는 설이다. 그 외에 돌을 뜻하는 ‘이시’에 장소를 나타내는 ‘나’가 접속된 것으로 돌이 많은 곳(지역)을 뜻한다는 설도 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돌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이시나 > 이지나’로의 변천과정을 거쳐 ‘이제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류큐방언의 아이우 3모음 체계에서 이단과 으단이 이단으로 발음되고 우단과 ㅅ단이 우단으로 발음되던 것이 현대어로 넘어와 아이우에오 5모음 체계가 되면서 이단과 으단, 우단과 ㅅ단은 분화된다. 이에 따라 이지나는 이제나로 발음하게 된다.

(2)우루마(ウルマ)

구시카와시(具志川市), 이시카와시(石川市), 가쓰렌정(勝連町), 요나시로정(与那城町)의 합병에 의해 2005년 4월 1일 새롭게 탄생한 시이다.

31) 宮城真治(1988), 『沖繩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40

예로부터 오키나와를 일컫는 하나의 미칭(美稱)이었던 ‘우루마’³²⁾를 시명으로 하였다. 류큐방언에서 ‘ウル’는 산호(산호초)를 의미하며, ‘マ’는 섬 또는 마을, 넓은 의미로는 장소·곳을 의미한다.

(3)나고(ナゴ / 名護)

名護는 방언인 ‘ナグ’의 한자차용표기로, 예전에는 那古, 那五로도 표기했다. 나고시가 위치해 있는 만(灣)이 파도가 잔잔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なご}和やか와 연관지어 붙여진 이름³³⁾으로 해석하고 있다. ナゴ를 방언으로 하면 ナグ가 되며, 현대어로 발음하게 되면서 다시 ナゴ가 되었다.

(4)미야코지마(ミヤコジマ / 宮古島)

히라라시(平良市), 구스쿠베정(城辺町), 시모지정(下地町), 이라부정(伊良部町), 우에노촌(上野村)이 합병하여 2005년 10월 1일 탄생한 시(市)이다. 두 개의 섬에 있던 市·町·村이 하나의 시로 합병되었는데, 주가 되는 섬 이름에서 시명을 따왔다.

宮古는 방언인 ‘ミヤーク’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들판·평지’를 뜻하는 방언인 ‘ミヤ·ミヤ’에, 지역·마을을 뜻하는 ‘クニ’에서 온 ‘ク’가 결합된 지명으로 미야코는 ‘평평한 지역’을 뜻한다.³⁴⁾ 이것은 해발 100m 이하의 평탄한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³⁵⁾이라고 할 수 있다.

32)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p.64~65

나라·헤이안시대(8세기~12세기) 건당사(遣唐使) 일행이 오키나와를 경유해 가는 항로에서 산호를 접하고는 그 아름다움에 놀라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우루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류큐열도의 섬들을 우루마지마라고 불렀다.

33)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96

34) 山中襄太(1995), 『地名語源辞典』, 校倉書房, p.339

35)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88~89

(5)이시가키(イシガキ / 石垣)

이시가키(石垣)섬 전체가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어서 섬 이름을 그대로 지명으로 사용하였다.

이시가키지마는 돌이 많은 지역으로 나하·슈리방언으로는 ‘イシガチ’라고 하는데, 돌(イシ)과 울타리(カチ)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탄생한 지명으로, 예로부터 돌로 집 주위의 울타리를 만들었던 이 섬의 모습을 본섬 사람들의 시각에서 표현한 이름으로 추정된다.

イシガチ는 イシガ키로의 음운변화를 보인다. 방언의 ㅈ는 현대어에서 ㅋ로 바뀌는 경우³⁶⁾가 많다.

(6)도카시키(トカシキ / 渡嘉敷)

渡嘉敷는 방언인 ‘トゥカシチ’의 한자차용표기로, 접두어인 ‘トゥ’에 경사를 뜻하는 ‘カシ’³⁷⁾가 접속된 형태로, ‘카시’는 기울다는 뜻의 ‘傾ぐ’^{かし}에서 온 것³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역을 의미하는 ㅈ(地)³⁹⁾가 접속된 형태로, ‘경사진 곳에 있는 지역’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름 그대로 이 섬은 전체적으로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사지가 많다.

トゥカシチ > トカシキ와 같은 음운 변화를 보인다. 이것도 이시가키의 음운변화와 마찬가지로 방언의 ㅈ가 현대어에서 ㅋ로 바뀌는 경우에 속한다. 그리고 류큐방언의 아이우 3모음 체계에서 우단과 ㅈ단이 모두 우단으로 발음되던 것이 현대어로 넘어와 본토와 같은 아이우에ㅈ의 5모음 체계가 되면서 우단과 ㅈ단이 분화되어 투가 ㅈ로 발음되고 있다.

제2쇼씨왕통(第二尚氏王統: 1470~1901)시대까지 미야코지마는 중국으로부터 ‘たいへいざん(太平山)’이라 불리었는데, ‘太平’는 ‘아주 평평하다’는 뜻으로 미야코지마의 지세를 잘 표현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36) 沖縄文化社(2002), 『ひとことウチナーグチ』, 沖縄文化社, p.25, p.42, p.120

昨日: ㅈヌウ > きのう, 籐: 호-ㅈ > ほうき, 肝: ㅈム > きも, 先: ㅈチ > さき

37) 牧野哲郎(1985), “「おもろそうし」にみる沖縄奄美の共通地名—沖縄・奄美の同系地名を求めて—”, 『南島の地名』第3集, 沖縄出版, p.40

38) 楠原佑介(1981), 『古代地名語源辞典』, 東京堂出版, p.90

39) 玉城三郎(1983), “村・島・原・寒水の一考察”, 『南島の地名』第1集, サザンプレス, p.60

(7)요미탄(ヨミタン / 読谷)

나카가미군(中頭郡)과 구니가미군(国頭郡)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요미탄촌(読谷村)은 나카가미(中頭)지방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オオニシ(大西)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ニシ는 북쪽을 가리키는 오키나와방언이다.

옛날의 ‘ユンタンザ(読谷山)’는 원래 지금의 온나촌(恩納村)에 있는 야마다(山田)라는 마을로 요미탄의 어원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야마다는 1673년 운나마기리가 신설되기 전까지 ユンタンザ마기리에 속해 있었다.

‘ユンタンザ’는 「四方田狭(ヨムタンザ)」로도 표현하였는데, 狭은 峡와 같은 뜻으로 쓰여 ‘골짜기’로 해석한다. 따라서 「四方田狭」는 ‘사방이 밭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야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형과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다.⁴⁰⁾

ユンタンザ에서 ヨミタンザン으로 변화하고 거기에서 ザン이 탈락되면서 ヨミタン이 되었다. 오키나와 약기인 サンシン(三線)이 サミセン > シャミセン(三味線)이 되고, 칸(簡)이 카미(紙)가 되는 것⁴¹⁾처럼 오키나와방언의 ン은 현대어로 넘어오면서 발음하기 편한 ミ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8)오키나와(オキナワ / 沖縄)

방언으로는 ‘우치너’이다. 沖縄는 ‘오키나와’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처럼 열도(列島) 혹은 군도(群島)의 주가 되는 섬의 명칭을 보면 오시마(大島)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오키나와의 북부에 위치해 있는 고우리지마(古宇利島)에서는 큰 염소를 ‘우크히ージャー’, 큰 콩을 ‘우크머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크’는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어이다.⁴²⁾

거기에 마을, 섬, 지역 등의 장소를 나타내는 ‘나, 나어’가 결합된 우크너는 ‘넓은 지역(大地)’을 의미한다.

우크너는 우키너 > 우치너 > 오키나와로 변화해 왔다.

40) 曾根信一(1983), “「読谷山」の地名について”, 『南島の地名』第1集, サザンプレス, pp.56~57

41) 宮城真治(1988), 『沖縄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52

42) 宮城真治(1988), 『沖縄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96

スマイ(住居) > スマ > シマ⁴³⁾에서 스가 시로 바뀌는 것처럼 우단이 이단으로 바뀌는 경우와 방언의 음운변천에서 키가 키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현대어에서 키로 나타나는 경우를 오키나와방언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즉 오키나와라는 명칭은 ‘큰 지역(大國)’, ‘큰 섬(大島)’이라는 뜻으로, 원래 오키나와 열도의 주가 되는 섬을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1879년에는 현(県) 이름이 되었으며, 1974년에는 시명(市名)이 되었다. 이것은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된 후 처음으로 탄생한 시(市)이다.

(9)이에(イエ / 伊江)

구니가미군(国頭郡) 모토부(本部)반도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방언으로는 ‘이-’이다. 어원에 대한 정설은 없으나 ‘돌로 된 섬(イシジマ)’이라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⁴⁴⁾이 있다.

이-에서イエ로의 음운변화를 보인다.

(10)온나(オンナ / 恩納)

恩納는 방언인 ‘운나’의 한자차용표기로, 숨겨진 땅(隱地) 또는 음지(陰地)를 뜻하는 지형어인 ‘온지’의 ‘온(オン)’과, 땅·마을 등의 장소를 나타내는 방언인 ‘나’의 복합어⁴⁵⁾로 산기슭의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オン나는 오키나와방언으로 운나이다.

(11)차탄(チャタン / 北谷)

北谷은 ‘키탃탄’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을 때의 한자차용표기로, 북쪽이나 계곡을 나타내는 한자의 뜻과는 무관하다.

‘키탃’는 ‘잘게 썰다’는 뜻의 ^{키자}刻む의 키자가 변한 것으로 단구 등 침식에 의해 잘린 지형을 의미한다. 키자는 키다 > 키탃로 변화해 왔다.

43)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91), 『地名を歩く』, ボーダーインク, p.25

44)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68

45)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87), 「珊瑚の島だより」 第11号, p.3

그리고 ‘탄’은 주위보다 약간 높은 지역의 평평한 지형을 의미하는 지형어로, 두 단어가 결합된 키타탄은 ‘단구상의 대지(台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6)

(12)이토만(イトマン / 糸満)

이토만은 어업으로 유명한 도시로, 방언으로는 ‘이츠크만’이다. 이토만의 발상지는 지형적으로 지금의 성산 일출봉처럼 바다쪽으로 뺀 ‘白銀堂(はくぎんどう)’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그 지형에 기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7)

‘いとまむむら’라고 불렀던 이 마을은 바위가 있는 바닷가를 뜻하는 지형어인 ‘이트(磯)’에 낭떠러지·절벽을 뜻하는 지형어인 ‘마마’의 복합어인 ‘이트마마’에서 온 것⁴⁸⁾으로, 조상들이 바닷가 절벽 위에 마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イトママ에서 イトマム로의 변천과정을 거쳐 イトマン이 되었다.

(13)다케토미(タケトミ / 竹富)

방언으로 ‘타키도우’이라 불리는 다케토미(竹富)는 이시가키지마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평탄한 지형의 섬이다.

그 어원은 ‘산(岳)이 없는 곳’이라는 뜻의 ‘타키(岳)+네(없다)+도우(곳)’가 합쳐진 ‘타키네도우’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9)

(14)오기미(オオギミ / 大宜味)

大宜味는 방언인 ‘우지미’의 한자차용표기이다.

46) 久手堅憲夫(1988), “おもろ地名「きたたん」とは何か”, 『南島の地名』第3集, 沖縄出版, pp.60~61

47) 伊波譜猷・服部四郎・仲宗根政善・外間守善(1974), 『伊波譜猷全集第4巻』, 平凡社, p.401

48)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p.123~124

49) 仲村庸夫(2005), 『島の名前 日本編』, 東京書籍, p.207

이 지명은 지역의 북쪽을 흐르는 이기미(イギミ)강에서 시작되었다.⁵⁰⁾

이기미강은 샘물이 솟아나는 강으로, 샘을 뜻하는 방언인 ‘イジュン’⁵¹⁾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イジュン > 이جوم > 이짐 > 이기미’ 로의 변천 과정을 거쳐 지금의 강 이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키나와방언의 음운 변천에서 ‘マジリ’가 ‘マギリ’, ‘ヤナジ(柳)’가 ‘ヤナギ’로 바뀌는 것처럼 ‘ジ’에서 ‘ギ’로 바뀌는 경우와 ‘タタン(畳み) > 타타미’에서처럼 ‘ン’이 ‘ミ’로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오기미는 끊임없이 샘솟아 흐르는 이기미강 주변에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⁵²⁾으로 샘(泉)을 의미하는 ‘イジュン’에 크다는 뜻의 ‘ウフ’가 접속된 ‘ウフイジュン’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15)나키진(ナキジン / 今帰仁)

방언으로는 ‘ナチジン’이다.

항구(ミナト)를 의미하는 ‘ミナ(水)’에서 변화한 ‘ミヤ’에 바닷가를 의미하는 ‘キシ’의 변형인 ‘キセン’이 결합된 형태인 ‘미야키센’을 그 어원으로 보고 있다. 즉, 나키진은 항구가 있는 해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나’는 미야 > 미야 > 니야로의 변천과정을 거쳐 ‘나’가 되었으며, ‘키시’는 뒤에 명사가 연결될 경우 ‘키센’으로 어미변화를 한다.⁵³⁾

(16)요나구니(ヨナグニ / 与那国)

与那国는 방언인 ‘ユナグニ’의 한자차용표기이다. ‘ユナ’는 쌀·모래를 의미하는 ‘ヨネ’의 오키나와방언으로, 오키나와에서는 해안가의 모래 충적지를 지칭할 때 쓰인다.

50) 宮城真治(1988), 『沖繩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21

51) 内間直仁・野原三義(2007), 『沖繩語辞典』, 研究社, p.23

52) 宮城真治(1988), 『沖繩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21

53) 牧野哲郎(1991), “運天・ぢらてん・宇天は港の意か”, 『南島の地名』第4集,

ポーターインク, p.39

즉 ‘ユナグニ’는 해안 가까이에 있는 모래 층적지를 의미하는 ‘ユナ’에 지역을 뜻하는 ‘クニ’가 접속된 지명으로 토질과 관련하여 붙여진 지명⁵⁴⁾으로 보고 있다.

(17)요나바루(ヨナバル / 与那原)

与那原는 모래를 뜻하는 ヌネ의 오키나와방언인 ‘ユナ’와 경지나 들판을 뜻하는 ‘ハル’의 합성어인 ‘ユナバル’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즉, 유나바루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모래가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장을 의미한다.⁵⁵⁾

(18)기노완(キノワン / 宜野湾)

방언으로는 ‘ジノーン’이다. 접두어인 ‘キ’에 습지를 뜻하는 ‘ヌ(沼)’, 그리고 나뉜다는 뜻의 ‘^わ分かれる’와 관련하여 사주(沙洲)에 의하여 나뉜 지역(바닷가)을 뜻하는 ‘ワカ’에서 온 ‘ワ’⁵⁶⁾와 가지다는 뜻의 ‘ヌ’가 결합된 합성어로, 습지가 있는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조몽(繩文) 시대의 지명어인 ‘キノヌ’가 그 어원이다.⁵⁷⁾ 즉, 기노완은 저습지를 가리키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54) 与那国町企画室(2002), 『交響する島宇宙 日本の最西端 与那国島の地名と風土』, 与那国町役場, pp.245~246

下中直人(2007), 『沖縄県の地名』, 平凡社, p.741

요나구니는 1477년 제주도 배가 난파되었을 때 표류중이던 세 사람이 요나구니지마 어민들에 의해 구조된 적이 있어 제주도와는 인연이 깊은 곳이다. 그들은 반 년 정도 요나구니에 체류하다 오키나와 본섬과 규슈를 경유하여 1479년에 무사히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귀국 후 임금에게 그 당시의 요나구니지마의 모습과 풍습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였으며, 그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다.

55)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91), 『地名を歩く』, ボーダーインク, p.155

56) 楠原佑介(1981), 『古代地名語源辞典』, 東京堂出版, p.238, p.331

57)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8

(19)긴(キン / 金武)

방언으로는 ‘チン’ 또는 ‘キン’ 이다. グシチン(具志堅), ウキン(宇堅), ク
ディキン(久手堅) 등 지명에 チン 또는 キン이 들어간 지역을 보면 전부 류큐석
회암 대지 위에 입지해 있는 것에 근거하여 본다면, ‘キン’ 은 ‘자르다(切
る)’ 의 어근인 ‘キ’ 와 넓은 들판을 뜻하는 ‘ヌ(野)’ 가 합쳐진 합성어인 키
ヌ가 チヌ > チン으로의 변화를 거쳐 킨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キン’ 은 류큐석회암 대지 위의 잘린 듯이 울퉁불퉁한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
라 하겠다.⁵⁸⁾

오키나와의 어원인 우키나가 우키나 > 우치나로의 변천과정을 거쳐 현대어에서
오키나와가 되듯이 키누도 치누 > 킨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킨이 되었다.
이처럼 방언에서 키가 차로 변하고 그것이 현대어로 넘어오면서 다시 키로 변하
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습지를 가리키는 스타가 스타 > 스타로 변하거나⁵⁹⁾ 메
너스타(前の田)가 메너스타로 변하는 것⁶⁰⁾처럼 스타가 스타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20)다라마(タラマ / 多良間)

평지가 펼쳐지고 있는 다라마섬의 지형으로 볼 때 평평하다는 뜻의 말레이시아
어인 tara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⁶¹⁾ 타라에 섬 또는 마을,
넓은 의미로 장소를 의미하는 ‘マ’ 가 결합된 지명이다.

2) 위치 관련(11)

(1)나하(ナハ / 那覇)

나하는 오키나와의 현청소재지로, 那覇는 오키나와 방언인 ‘ナファ, ナー
ファ’ 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쇼하시(尚巴志)가 산잔(三山)을 통일(1429년)하고 무역을 번성시키기 위하여
본거지를 우라소에(浦添)에서 나하(那覇)로 옮긴다.

58)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p.102~103

59)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95), 「珊瑚の島だより」第24号,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 p.4

60)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89), 「珊瑚の島だより」第14号,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 p.3

61) 山中襄太(1995), 『地名語源辞典』, 校倉書房, pp.225~226

우키시마(浮島)라고 불리던 때, 나하는 나하토마리(那覇泊)와 아메쿠토마리(天久泊) 사이에 있는 몇 개의 작은 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바다 쪽(동중국해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섬이었다. 그로 인해 조몽(縄文) 시대 머리를 뜻하는 ‘ナ’와 방향을 뜻하는 ‘パ’가 결합되면서 ‘ナパ’가 되었다. 앞쪽을 나타내는 ナパ가 ‘앞쪽에 있는 섬’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확대된 것이다.⁶²⁾ ‘ナパ’가 ‘ナファ’로 변하고 다시 ‘ナハ’로 변하면서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2)가데나(カデナ / 嘉手納)

방언으로는 ‘カディナー’이다. ‘カディナー’는 지형의 구석, 모퉁이를 뜻하는 카ドウ(角)와 장소·곳을 뜻하는 ‘ナ’의 복합어인 ‘カドウナ’에서 변한 것⁶³⁾으로, 모퉁이 또는 구석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히자(比謝)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모퉁이에 위치해 있는 가데나정(嘉手納町)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는 순간 이해가 가는 지명이다.

カドウナ에서 カディナ > カディナー로의 변천 과정을 거쳐 지금의 カデナ가 되었다. 카도우나에서 카디나로 변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우쿠나 > 우키나, 스마 > 시마와 같은 우단이 이단으로 변하는 경우이다.

(3)구니가미(クニガミ / 国頭)

구니가미는 오키나와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방언으로는 ‘クンジャン’이다. 오키나와 본섬에는 북쪽에서부터 구니가미(国頭), 나카가미(中頭), 시마지리(島尻)가 있다. 이것은 북쪽을 위로 보는 사상에서 북쪽에는 가미(上), 남쪽에는 시리(尻)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것이다.⁶⁴⁾

즉 ‘구니가미(国頭)’는 이 지역의 북쪽(国の上)이라는 뜻의 방언인 ‘クンガ미’에서 왔다.

‘クンガ미’는 ‘クンヂャ미 > クンジャン > グンチャン’과 같은 음운 변화를 보인다.

62) 久手堅憲夫(2005), “那覇(ナーフア)という地名の由来”, 『南島の地名』第5集,

ボーダーインク, p.180

63)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91), 『地名を歩く』, ボーダーインク, p.82

64)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91), 『地名を歩く』, ボーダーインク, p.21

그러나 청·일전쟁 후 중국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チャイナ에서 나온 チャン과 발음이 같아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 아래, 1906년 ‘クニガミ’로 개칭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16년 지금의 발음으로 바뀌게 되었다.⁶⁵⁾

クンガミ가 쿤챠미로 변하듯이 방언의 음운 변천과정에서 가행이 챠행(ジャ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새들이 서식하던 늪을 의미하는 トウングム이가 톤구츄무이로⁶⁶⁾, 절벽아래에 있는 강을 의미하는 한타가-가 한타ジャー⁶⁷⁾로 변하는 것이 같은 예에 속한다.

(4)니시하라(ニシハラ / 西原)

西는 북쪽을 뜻하는 류큐방언인 ‘ニシ’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이 지명은 슈리성(首里城)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경지·들판을 의미하는 방언인 ‘ニシバル’에서 왔다.⁶⁸⁾

(5)하에baru(ハエバル / 南風原)

오키나와 방언으로는 ‘フェーバル’로, ‘フェー’는 남쪽을 의미하는데, 일본어에서 바람과 관련된 방위 명칭인 ‘はえ’에서 온 것이다.

はえ(hae)에서 연모음인 ア(a)+エ(e)가 장음(e:)이 되면서 フェー가 되었다.

‘フェー’에 경지·들판을 뜻하는 ‘ハル’가 접속되어 생긴 지명으로, 슈리성(首里城)에서 보았을 때 남쪽에 위치한 곳이라는 뜻으로 니시하라(西原)에 대응되는 지명이다.⁶⁹⁾

65) 宮城真治(1988), 『沖繩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p.65~66

66) 宮城真治(1988), 『沖繩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72

67)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160

68) 西原町役場(1989), 『西原町史 第4巻 資料編3 西原の民俗』

69) 下中直人(2007), 『沖繩県の地名』, 平凡社, p.229

(6)미나미다이토(ミナミダイトウ / 南大東)

다이토(大東)는 ‘큰(ウフ) 동쪽(アガリ)의 섬(シマ)’이라는 뜻의 방언인 ‘우푸아加里지마’의 한자표기인 ‘다이토지마(大東島)’에서 왔다.⁷⁰⁾ 거기에 방향을 나타내는 南(みなみ)가 결합된 지명으로 메이지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다이토지마는 1885(明治18)년 메이지 정부에 의해 일본의 영토라는 표지가 세워질 때까지 보로지노제도(ボロジノ諸島)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은 1820년 이 섬을 발견한 러시아 함대의 이름에서 따 온 것⁷¹⁾이다.

무인도였던 이 섬에 1900년 하치조지마(八丈島) 출신인 다마오키항에몽(玉置半右衛門)이 과견한 22명이 상륙하면서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7)기타다이토(キタダイトウ / 北大東)

다이토(大東)는 ‘큰(ウフ) 동쪽(アガリ)의 섬(シマ)’이라는 뜻의 방언인 ‘우푸아加里지마’의 한자표기인 ‘다이토지마(大東島)’에서 왔다.⁷²⁾ 다이토지마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北(きた)라는 방향 접두어가 연결된 지명이다.

(8)기타나카구스쿠(キタナカグスク / 北中城)

나카구스쿠촌(中城村)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나카구스쿠에 대한 설명은 역사와 관련하여 자세히 하기로 하겠다.

グスク의 ‘グ’는 지금의 ‘お, 御’와 같은 존경의 접두어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마독을 뜻하는 ‘いご(囲碁)’의 ‘ご(碁)’로 보아 둘러싸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スク’는 일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고어인 ‘シキ(敷き)’에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グクス(城)는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의해 둘러싸인 일정한 지역 안’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⁷³⁾

70)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1994),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 p.290

71) 縄大学地域研究所(2008), 『南大東島 これからの100年—どんごさぼ—の挑戦—』, 東和明, p.2

72)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1994),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 p.290

73)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200

구스쿠의 형태로는 종교와 관련한 곳, 조상의 묘와 관련한 곳, 오키나와의 사머니즘과 관련한 성지 등이 있다.⁷⁴⁾

(9)히가시(ヒガシ / 東)

오키나와 본섬 북부, 구니가미(国頭)산지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오키나와방언으로 ‘フィガシ’ 라고 한다.

나구(名護)마기리에 속해 있던 히가시촌(東村)은 1673년 구시(久志)마기리(久志)가 신설되면서 구시마기리에 편입된다. 그리고, 1908년 오키나와현 및 도서정촌제 시행에 따라 구시마기리는 구시촌(久志村)이 된다.

그리고 1923년 구시촌의 북부지역이 분리되면서 히가시촌이 되었다.

이 지명의 어원은 구시촌의 속칭인 ‘ヒジャバラ(東原)’, ‘ヒジャカタ(東方)’에서 찾을 수 있다. 방언으로 ‘ヒジャ’는 ‘アガリ’와 함께 동쪽을 의미한다.⁷⁵⁾

(10)미야코지마(ミヤコジマ / 宮古島)

방향과 관련된 지명어를 보면 남쪽을 앞(前)으로 표현하고 북쪽을 뒤(後ろ)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오키나와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미야코(宮古)·야에야마(八重山)를 통틀어 사키시마(先島)라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야코지마는 본섬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이라는 뜻의 ‘まえ(前)’의 오키나와방언인 ‘マー’에, 지역·마을을 뜻하는 ‘クニ’의 생략형인 ‘ク’가 합쳐진 ‘マーク(前国)’에서 왔다⁷⁶⁾는 설이다.

(11)이에(イエ / 伊江)

구니가미군 모토부반도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방언인 ‘イージマ’에서 지명을 따왔다.

74) 奥田良寛春(1971), 『沖縄の地名考』, 月刊沖縄社, p.83

75) 宮城真治(1988), 『沖縄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54

76) 宮城真治(1988), 『沖縄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57

어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서쪽을 의미하는 오키나와방언인 ‘イリ’에 ‘シマ(島)’가 결합된 합성어로 ‘본섬 서쪽에 위치해 있는 섬’이라는 뜻⁷⁷⁾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생물 관련(4)

(1)요나구니(ヨナグニ / 与那国)

이시가키지마에서는 요나구니를 ‘ユノーン’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하마보(オオハマボウ)’라는 고목(高木)을 가리키는 오키나와 방언인 ‘ユーナ’에 마을·섬·지역을 뜻하는 ‘フン(組)’이 결합된 합성어로 ‘유나(ユーナ)의 군락지’를 뜻한다.⁷⁸⁾

(2)구메지마(クメジマ / 久米島)

이 지역은 일찍이 비옥한 평야가 많아 쌀 생산이 가능하였는데, 이처럼 예로부터 류큐의 유명한 쌀 생산지로 알려지면서 ‘クミジマ(米島)’라 불렸다. 특히 17세기 이후 논의 개발과 수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늘게 된다.⁷⁹⁾

구메지마를 가리키는 다른 한자차용표기-仇弥, 古米, 姑米, 九米-를 보더라도 쌀과 관련된 한자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쌀의 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1908년 오키나와현 및 도서정촌제가 시행되면서 ‘クミ’는 ‘クメ’로 발음하게 된다.

(3) 아구니(アグニ / 粟国)

방언으로도 ‘アグニ’이다. 이 지명은 이 지역 농산물의 주가 되는 것이 조(あわ:粟)였던 것에 기인한다.⁸⁰⁾

アワグニ에서 アーグニ가 되고, 후에 アグニ가 되었다. 옛날에는 아와시마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77)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68

78) 与那国町企画室(2002), 『交響する島宇宙 日本最西端 与那国島の地名と風土』, p.245

79) 下中直人(2002), 『沖縄県の地名』, 平凡社, p.547

80)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1994),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 p.105

(4)이에(イエ / 伊江)

구니가미군 모토부반도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방언인 ‘이즈마’에서 지명을 따왔다.

방언으로 오곡의 신을 ‘이즈神’라고 하고, 풍요로운 지역을 ‘이즈国’라고 한다. 벼가 잘 익어가는 이 섬의 모습을 보고 ‘이즈島’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⁸¹⁾로, ‘이즈’는 일본어의 ‘いひ(飯)’와 같은 뜻이다.

섬 동쪽에 봉우리가 하나 있는 것 외에는 섬 주변이 모두 평야를 이루고 있다.

4) 역사 관련(4)

(1)우라소에(ウラソエ / 浦添)

浦添는 방언인 ‘우라시’의 한자차용표기로, ‘우라오이(浦襲い)’가 그 어원이다.

여기에서 ‘우라’는 마을, ‘오이’는 지배한다는 뜻으로 ‘오키나와의 모든 지역을 지배한다’(浦を襲う)’는 뜻⁸²⁾이라 하겠다.

‘우라오이’를 오키나와 방언으로는 ‘우라우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라스이 > 우라시로의 변천과정을 거쳐 우라소에⁸³⁾가 되었다.

‘우라소에’는 오키나와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주장(中山)왕의 의지를 그대로 담아 지어진 이름이다.

우라스이가 우라시로 바뀐 것은 카도우나가 카다이, 우쿠나가 우키나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방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우단이 이단으로 변하는 경우이다.

81) 宮城真治(1988), 『沖繩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88

82)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1994),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 p.197

83) 比嘉徳(1989), 『中頭郡誌』, 中頭郡, p.6

류큐역사에서 최초의 왕인 순텐(舜天)왕에서 열 번째 왕인 부네이(武寧)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이 이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슈리(首里) 이전의 수도라 할 수 있다.

1429년 사시키(佐敷) 출신의 쇼하시(尚巴志)의 공격을 받아 멸망함에 따라 그 후 거점이 슈리성(首里城)으로 옮겨진다.

(2)도미구스쿠(トミグスク / 豊見城)

豊見城는 방언인 ‘トウミグスク’의 한자차용표기이다. ‘トウミ’는 ‘トヨミ’에서 변화한 것으로, ‘トヨミ’는 유명하다, 명성이 높다는 뜻의 ‘とよむ(鳴響む, 豊む)’에서 파생된 것이다.⁸⁴⁾

이 지역에 난잔(南山)왕의 사촌 남동생이 성(城)을 쌓았는데, 그 성을 미화하여 ‘トヨミグスク’라 부르게 되었으며 그것이 그대로 지명이 되었다.

トヨミグスク는 トウミグスク > トミグスク로 변해왔다.⁸⁵⁾ 이것 또한 才단이 우단(トウ)으로 발음되다가 현대어로 넘어오면서 분화되어 才단(ト)으로 읽게 된 경우에 속한다.

(3)나카구스쿠(ナカグスク / 中城)

류큐시대부터 근세까지 ナカグシク마기리에 속한 류큐왕국 세자의 영토였다.

오늘날 나카구스쿠라고 하면 한 군데뿐이지만, 1660년대 이전에는 여기 저기에 나카구스쿠라는 지명이 있었다.

그 지명들이 개칭되기 시작한 것은 제2쇼씨(第二尚氏)의 세자가 이 지역을 물려받으면서 나카구스쿠왕자라 칭하게 되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⁸⁶⁾

나카구스쿠는 ‘일정한 구획 안’을 뜻하는 지명어인 ‘ナカ’와 구획을 가리키는 ‘グスク’의 합성어로 ‘일정한 구획 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즉, 나카구스쿠는 세자령이라고 하는 일정한 구획 안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다.

(4)난조(ナンジョウ / 南城)

다마구스쿠촌(玉城村), 지넨촌(知念村), 오자토촌(大里村), 사사키정(佐敷町)의 합병에 의해 2006년 1월 탄생한 시이다. 오키나와의 문화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발전해 갔다는 남쪽 지방 사람들의 자부심과 지방 부족장인 아지(按司)가 거주하고 있던 성(城)이 많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붙여졌다.⁸⁷⁾

84) 沖縄古語大辞典編集委員会(1995), 『沖縄古語大辞典』, 角川書店, p.464

85)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 竹内理三(1994), 『角川日本語地名大辞典』, p.503

86)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91), 『地名を歩く』, ボーダーインク, pp.86~87

87) 南城市役所(2008), “合併までの経緯”, 南城市, p.2

5) 마을의 특징(2)

(1)도나키(トナキ / 渡名喜)

渡名喜는 방언인 ‘トウナチ’의 한자차용표기로, 어원은 이 지역의 특징이자 자랑거리인 ‘문이 없어도 도난의 염려가 없는 평화로운 섬(戸がなくても盗難の心配がない平和な島)’이라는 문장에서 왔다.⁸⁸⁾ 그래서 17세기 중엽까지는 ‘戸無島’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2)이에(イエ / 伊江)

구니가미군 모토부반도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방언인 ‘イーシマ’에서 지명을 따왔다. 어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좋은 섬(イイシマ)’이라는 뜻⁸⁹⁾에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

6) 마을에 있는 자연물(1)

(1)야에세(ヤエセ / 八重瀬)

2005년 고친다정(東風平町)와 구시카미촌(具志頭村)이 합병되면서 새롭게 탄생한 초(町)로, 방언으로는 ‘エージ’라고 한다.

새로운 지명으로 야에세가 선정된 이유는 야에세다케(八重瀬岳)가 고친다 남부와 구시카미의 두 지역에 걸쳐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의 상징적인 존재인데다 지리적으로도 알기 쉽기 때문이다.⁹⁰⁾

‘エージ’는 전방·앞쪽을 뜻하는 야이⁹¹⁾에 바위를 뜻하는 시가 접속된 지명으로, エー는 야이(yai)에서 연모음인 아(a)+이(i)가 장음인 에(e:)로 바뀐 것이다. 즉, ‘エージ’는 그 마을의 앞쪽(전방)에 높이 솟아 있는 바위산을 의미한다.

88) 白井勝也(1998), 『日本地名百科事典』, 小学館, p.903

89)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p.68

90) 八重瀬町役場(2005), 「東風平町具志頭村合併協議に関する経過報告(概要)」, p.4

91) 宮城真治(1988), 『沖縄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58

지명의 의미적 고찰을 통하여 첫째, 42개 중 지형·지질과 관련한 것이 20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예로부터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키나와가 사면이 바다인 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업과 관련된 지명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것은 마을이 위치해 있는 것과 관련한 지명으로, 26.2%(11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는 동서남북과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이 7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생물, 역사와 관련한 것이 각 4개씩(9.5%)씩 있었으며, 마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지명이 2개(4.8%), 다른 市·町·村과의 합병에 따라 새로운 지명을 선택함에 있어서 두 지역에 걸쳐 솟아 있어 어디에서나 보이는 대표적인 산 이름을 지명으로 선택한 경우도 1개(2.4%) 있다.

일본 본토의 지명에서 자주 보이는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한 전설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붙여진 지명은 오키나와 市·町·村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유일하게 말레이시아어에서 유래한다는 설이 유력한 지명인 ‘다라마(タラマ)’는 남방계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는 류큐방언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市·町·村명을 의미적으로 고찰·분석해 보니, 오키나와 지명에는 지형·지질, 위치, 생물과 관련한 것(83.3%)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경제·사회 활동의 영향도 크지만 역시 자연적인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지명이란 지표상의 어느 곳의 이름이다. ‘어느 곳’ 이라고 해도 그것은 범위가 넓다. 좁게는 어느 한 지점일 수도 있으며, 넓게는 지역명, 국가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⁹²⁾ 그리고 지명은 각 지역의 풍토와 각 시대의 선인들의 생활과 언어·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탄생하여 전해져 온 역사적인 문화유산이다.⁹³⁾ 이로 인해, 지명의 어원을 연구하다 보면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의 市·町·村명을 외형적, 의미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오키나와 옛 조상들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외형적 고찰에서는 지명이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 구성 분석을 해 보았으며, 50음도 중에서 오키나와 지명에 많이 쓰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찾아 보았다.

또한 액센트 조사를 통하여 류큐방언의 특징을 찾아보고, 한자수 조사를 통하여 오키나와 지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으려고 하였다.

의미적 고찰에 대한 결과는 지형·지질과 관련된 지명, 위치와 관련된 지명, 역사와 관련된 지명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복 설명을 포함한 42개의 市·町·村명의 구성을 분석해 보니 접두어 또는 어기roman 이 이루어진 지명은 14개-이체나, 나고, 이시가키, 이토만, 구니가미, 미나미다이토, 기타다이토, 히가시, 우라소에, 도나키, 이에(4번 중복)-이다. 그 중에서 순수 단일어 지명은 ‘나고, 히가시, 이에’ 이고, 그 나머지는 지명의 특징을 말해주는 두 단어가 대등하게 연결된 것(이체나, 이시가키, 이토만, 구니가미), 지명의 특징을 설명 하는 문장에서 몇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지명(미나미다이토, 기타다이토, 우라소에, 도나키) 등이 있다.

여기를 중심으로 접두어 또는 접미어와 연결된 28개의 지명 중에서는 어기+접미어로 구성된 것이 16개로 가장 많이 보인다. 접두어가 들어간 지명은 16개 보이는데, 그 중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어인 동서남북이 들어간 지명이 8개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92) 千葉徳爾(1994), 『新・地名の研究』新訂版, 古今書院, p.21

93) 宮城真治(1988), 『沖縄地名考』, 名護市教育委員会, p.140

2. 오키나와 시초손명에는 총 46개의 청음(清音) 중 약 52.2%에 해당하는 24개 (ア, イ, ウ, エ, カ, キ, ク, シ, ス, タ, チ, ナ, ニ, ヌ, ノ, フ, マ, ミ, ム, ヌ, ラ, リ, ル, ン)만이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 장음으로 처리된 ‘에ー’, 그리고 근대에 새로 탄생한 ‘진노ーん’의 ‘노’를 제외하면 지명을 통해서도 ‘아이우’의 3모음 밖에 쓰이지 않는 오키나와방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3. 액센트 조사를 통하여 슈리·나하방언은 도쿄식과 게이한식 두 액센트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오키나와방언에서만 볼 수 있는 액센트형으로 제 1拍에서 어말까지 ●과 ○의 중간 높이로 읽는 형태의 것(◎◎, ◎◎◎, ◎◎◎◎)이 13개로 많이 보인다.

4. 한자수를 통한 다른 지역과의 지명 비교를 하였다.

함께 조사한 8개 지역(홋카이도, 아오모리현, 가나가와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교토부, 도쿠시마현, 가고시마현)에서는 모두 두 개의 한자로 된 지명이 57.7%(교토부)~89.5%(돗토리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오키나와현에서는 세 개의 한자로 된 지명이 전체 41개 중 21개로 51.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오키나와 지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5. 마지막으로 의미적 고찰에 대한 결과를 지형·지질과 관련된 지명, 위치와 관련된 지명, 역사와 관련된 지명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니, 조사한 42개(중복 설명 포함. 37개 市·町·村)의 지명 중 지형·지질과 관련한 지명이 20개로 전체의 47.6%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낭떠러지, 산골짜기, 류큐석회암 대지, 돌, 산호, 모래 등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척박한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마을이 위치와 관련한 지명이 26.2%(11개)를 차지하고 있다.

11개 중 7개 지역이 동서남북과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편리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생물과 관련한 지명과 역사와 관련한 지명, 마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지명, 市·町·村 합병에 따라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 이름을 지명으로 선택한 경우 등이 있다.

오키나와의 市·町·村명을 의미적으로 고찰·분석해 보니, 오키나와 지명에는 지형·지질·위치·생물과 관련한 것(83.3%)이 많은 것으로 보아 오키나와의 지명은 지극히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현 전체의 시초손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41개의 시초손 중에서 어느 한 지역을 정하여 그 곳의 아자(字)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된 오키나와 지명의 특징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번 연구에서 제외된 4개의 지역을 포함한 시초손 전체에 대한 결과로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 飯豊毅一・日野資純・佐藤亮一(1984), 『講座方言学 10 沖縄・奄美の方言』, 国書刊行会
- 飯豊毅一・日野資純・佐藤亮一(1986), 『講座方言学 1 方言概説』, 国書刊行会
- 江端義夫(2002), 『朝倉日本語講座 10 方言』, 朝倉書店
- 大野晋・柴田武(1977), 『岩波講座日本語 11 方言』, 岩波書店
- 沖縄文化社(2002), 『ひとことウチナーグチ』, 沖縄文化社
- 奥田良寛春(1971), 『沖縄の地名考』, 月刊沖縄社
- 亀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1997), 『日本列島の言語』, 三省堂
- 武光誠(2006), 『地名の歴史』, 河出書房新社
- 田名真之(1993), 『南島地名考』, ひるぎ社
- 千葉徳爾(1994), 『新・地名の研究』, 古今書院
- 中條修(1990), 『日本語の音韻とアクセント』, 勁草書房
- 仲村庸夫(2005), 『島の名前 日本編』, 東京書籍
-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83), 『南島の地名』第1集, サザンプレス
-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85), 『南島の地名』第2集, 沖縄出版
-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88), 『南島の地名』第3集, 沖縄出版
-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91), 『地名を歩く』, ボーダーインク
-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91), 『南島の地名』第4集, ボーダーインク
-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5), 『南島の地名』第6集, ボーダーインク
-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2006), 『地名を歩く 奄美・沖縄の人・神・自然』, ボーダーインク
- 平山輝男・大島一郎(1975), 『新・日本語講座 3 現代日本語の音声と方言』, 汐文社

<사전류>

- 内間直仁・野原三義(2007), 『沖縄語辞典』, 研究社
- 角川日本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1994), 『角川日本地名大辞典 47 沖縄県』, 角川書店
- 国立国語研究所(2001), 『沖縄語辞典』, 財務省印刷局

下中直人(2007), 『沖縄県の地名』, 平凡社
尚学図書(1989), 『日本方言大辞典』, 小学館
白井勝也(1998), 『日本地名百科事典』, 小学館
平山輝男(1992), 『現代日本語方言大辞典』 第一巻, 明治書院
楠原佑介(1981), 『古代地名語源辞典』, 東京堂出版
山中襄太(1995), 『地名語源辞典』, 校倉書房

<홍보책자>

沖縄県知事公室広報課(2008), 『沖縄県の概況』, 沖縄広報センター
沖縄県知事公室基地対策室(2008), 『沖縄の米軍及び自衛隊基地(統計資料集)』, 沖縄県
沖縄大学地域研究所(2008), 『南大東島 これからの100年—どんごさぼ—の挑戦—』, 東和明
北大東村役場(1998), 『北大東村』, 北大東村役場
南城市役所(2008), 『合併までの経緯』, 南城市
南島地名研究センター(1987), 『珊瑚の島だより』 第11号, 沖縄国際大学
西原町史編纂委員会(1989), 『西原町史 第4巻 資料編3 西原の民俗』, 西原町役場
比嘉徳(1989), 『中頭郡誌』, 前田草苗
八重瀬町役場(2005), 『東風平町具志頭村合併協議に関する経過報告(概要)』, 八重瀬町
与那国町企画室(2002), 『交響する島宇宙—日本の最西端—与那国島の地名と風土』, 与那国町
오키나와현(1992), 『슈리조』, 沖縄県
오키나와현(1992), 『오키나와의 문화』, 沖縄県

<논문>

權寧韓(1992), 『公州市의 地名語 研究』, 公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徐明仁(1998), 『청원군 地名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김정미(2003), 『金浦市 地名에 관한 地理學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Study on geographical designation of Okinawa
-Centering around the name of the Shi · Cho · Son-**

Lee, Yeong-Ja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ang-Ik

The geographical designation is the name attached by the people to recognize a land and distinguish it from another one and also is the medium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the land. Thus, as the geographical designation is made from necessity during the daily life, its namer could be a as normal person as us and most of the names could have been referred from the usual words during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Therefore, the geographical designation has the trace of our ancestors and the study on the etymology of the field provides the information to us on what was considered to be important during the period in the past in the geographical region.

This study fou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yukyu dialect by means of the phoneme and accent analysis of the geographical designations, examined the typical features of the Okinawa-specific geographical design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hinese letters with the designations of other geographical regions, and, finally, searched for what maintained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in Okinawa through type analysis of the geographical designations in Okinawa.

The study result, firstly, on the phonemes of the total 41 Shi · Cho · Son names showed all of them had ‘ア・イ・ウ(a・i・u)’ 3 vowels except ‘エー(e:)’ and ‘フエ(fe)’ changed to a long sound by the prolonged sound,

‘ノ(no)’ of ‘ジノーン(Jinoon)’ born in the modern age, and ‘ジョウ(jyo)’ of ‘ナンジョウ(Nanjyo)’ newly born by the 2006 merger, which indic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yukyu dialect in the form of the geographical designations.

The study on the accent of Shi・Cho・Son names in Okinawa, secondly, showed the Tokyo type and Keihan type accents still remained in the Shuri・Naha dialect. The frequently appearing Keihan type variant accent (◎◎, ◎◎◎, ◎◎◎◎), read at the medium height of ● and ○ from the 1st mora(拍) to the ending of a word, is the unique accent style found in the Okinawa dialect only.

After studying the number of the Chinese letters of the Shi・Cho・Son names from the 9 regions to include Okinawaken, thirdly, the result showed while many of the 8 regions other than Okinawaken had the geographical designations composed of two Chinese letters, 51.2%, 21 out of the entire 41 names, of Okinawa names had three Chinese letters. It is considered the Okinawa region had more Chinese letters than the mainland for the reason that they borrowed the sound of the letter only in order to keep their dialect.

The research on the meaning of Shi・Cho・Son names of Okinawa, fourthly, showed they were largely related to the topography・geography. Regarding that there is no name which has a relation to the fishery although Okinawa is an island surrounded by the sea, it seems that most of the people in the region possibly have been farmers who have traditionally observed their environmental circumstances so that they could adjust to the nature easily.